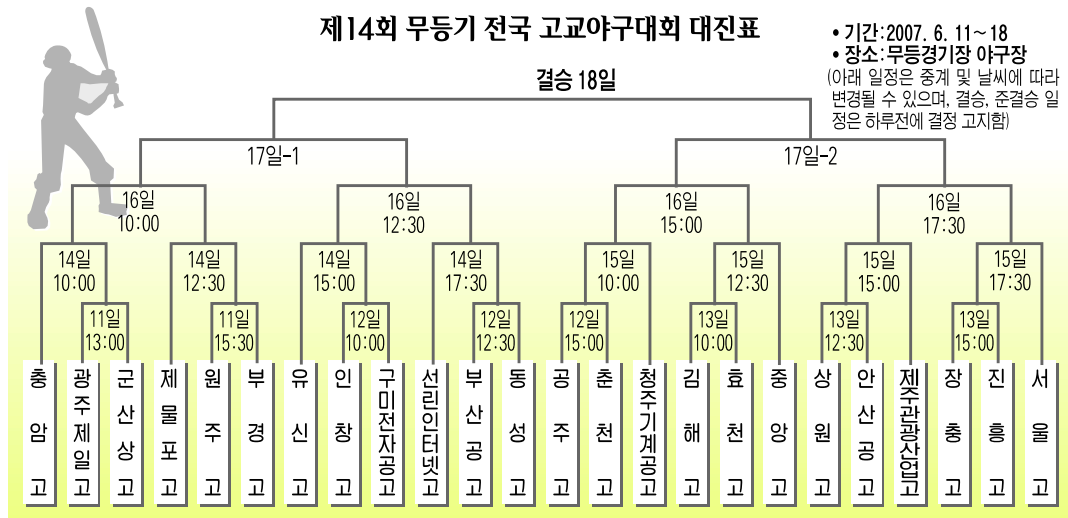


올 시즌 고교야구 최강 가린다

제14회 무등기 야구 11일 개막...열전 8일 작년 챔프 진흥고 등 전국 24개팀 대접전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 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가 오는 11일 개막...



일(LA에인절스)이 빠졌지만, 임요한-나성범-조영복(이상 3학년) 등이 배치된 마운드가 안정적이다.

14번째 주인을 가리는 올해 무등기 대회는 각 팀의 전력이 평준화돼 매 경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대 접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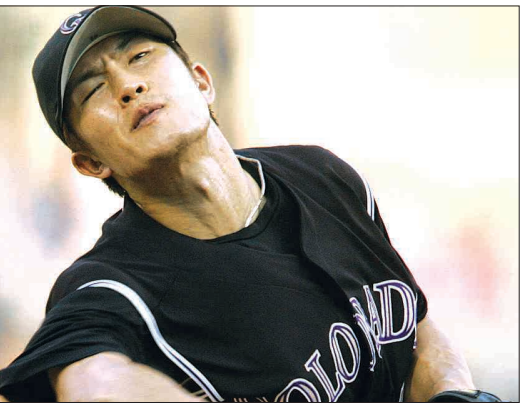
한국 프로야구 통산 20만안타·2만도루 KBO도 몰랐다

‘개인통산 2천 안타는 알아도 프로야구 통산 20만 안타와 2만 도루는 몰랐다’ 양준혁(38·삼성)이 최초로 개인 통산 2천 안타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프로야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통산 20만안타와 2만도루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현재까지 양산탄 안타는 총 20만934개로 대망의 20만 안타의 주인공은 지난 5월 준승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다.

정확한 시기·선수 알아낼 자료 없어

4경기가 열릴 경우 하루 평균 50~60개 안타가 쏟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D데이'는 5월 중순이었다. KBO 전산 자료에 따르면 대기록의 주인공은 지난달 19일 4개 구장에서 터진 66개 중 29번째 안타였다.



김병현



서재응



정영일

무등기와 함께한 스타들

김병현·서재응·이승엽 등 초대형 스타 발굴의 場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무등기는 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야구 스타들을 배출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재응과 김병현, 최희섭, 김진우 등은 무등기를 통해 별들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 한국 야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취문고의 김진우(30·샌프란시스코 산하 프레스노 그리즐러스)는 2회 대회에서 타고난 천재성을 뽐낸 뒤 세계 야구의 메카인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2004년 일본으로 진출한 '아시아 홈런왕' 이승엽(30·오마이리 타이거즈)은 94년 경북고 3학년 때 무등기에 출전, 타자가 아닌 투수로 명성을 날렸다.



이승엽



최희섭



한기주

군산상고 전태현 투수 KIA서 신인 1차지명

KIA타이거즈는 5일 2008년도 신인 1차지명으로 투수 전태현(18·군산상고)을 확정했다. 187cm, 85kg의 다부진 체격을 지닌 전태현은 우완 사이드암 투수로 직구 최고 구속 141km, 평균 133~138km이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KIA 김진우 1군 복귀

'토종 에이스' 김진우(KIA)가 침묵 직전인 KIA호에 승선했다. 5일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합류한 김진우는 '팀도 구하고, 자신도 구하겠다'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일단 6일 미들맨으로 나가 첫선을 보인 뒤 8일, 9일, 10일엔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박찬호 "또 다른 도전 시작"

홈페이지에 방송 소감 밝히

"당당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기쁨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저의 등판 때마다 야구장을 찾아주는 서너 명의 소수 한인들과 같이 희망의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에 행복해하며 이번엔 결정적인 진로에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한국인 투수 박찬호(34)가 5일 마이너리그 트리플A 뉴올리언스 방송 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박찬호는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찬호로부터' 코너에서 메츠를 떠나는 심경을 드러냈다.

동지를 찾기 위한 자신의 도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올해 기본연봉이 60만달러인 박찬호는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 새 팀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그는 "뉴올리언스를 떠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도 행복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든 야구를 하는 박찬호를 바라보는 한인들이 있고 그 수가 많으나 적으나 공을 던지는 박찬호를 위해서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남기는 글을 읽는 여러분의 미소를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갖겠습니다. 즐거움이 많은 여름이 될 것입니다"라며 여유를 남겼다.

추신수 10경기 연속 안타 美프로야구 마이너리그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캐츠의 타격감각을 앞세워 거침없는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 소속인 추신수는 5일 뉴욕주 버펄로의 던 타이 어파크에서 열린 톨레도 머드헨스(디트로이트 산하)와 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나서 2루타를 날려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연속경기 안타행진을 '10경기'로 늘렸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70에서 0.271이 됐다. 추신수는 선형 타자 2명의 연속 홈런으로 2-2 동점을 이룬 1회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으나 4-2로 앞선 3회 1사 후 빨랫줄 같은 좌월 2루타를 날린 뒤 다음 타자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4회 무사 3루에서는 좌익수 쪽 깊숙한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보냈다. 버펄로는 9-3으로 이겼다.